경북일보

2007년 07월 04일 002면

"대구시 의원 마음은 콩밭에"

예결특위 중 일부 의원 선대위 발대식 참석

"어디에 갔나?"

2일 오전10시 대구시의회 3층 소의회실.

이날 오전부터 대구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이윤원)가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의원중 2명의 모습이 오전 내내 보이질 않았다. L, K의원이었다.

K의원은 병원에 예약이 돼 있어 어쩔수 없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L 의원은 위원장에게 급한 사정이 있다고 이유를 둘러댄 뒤 이날 엑스코에서 있었던 대선경선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인, 특히 지난해 집행한 예산의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예결특위 위원로서 신분을 내팽개친 것이다.

더군다나 이날 행사는 '선대위 발대식'이어서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L의원의 이같은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지난해 예산 집행에서 불용액 과다 등을 따지면서 "책임의식이 미흡하며 도덕성이 결여돼 있다"고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결산검사 이틀째인 3일 오전에도 L 의원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윤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L의원이 오늘(3일)도 급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예결특위가 일반 상임위원회 활동도 아닌 예결특위 활동을 무시한 의원들은 애써 모른채 눈감으면 집행부를 향해 책임과 도덕성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